



정답과 해설

2·1

초등 국어



1. 만나서 반가워요!

핵심 확인 문제

6쪽

- | | | |
|---------|---------|------|
| 1 × | 2 읽을 | 3 × |
| 4 귀 기울여 | 5 (2) ○ | 6 내용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7~8쪽

- | | | |
|-------|-------|-----|
| 1 발표 | 2 ③ | 3 ① |
| 4 쓰면서 | 5 곱슬이 | 6 ② |
| 7 ④ | 8 ㉔ | |

- 발표를 하거나 듣는 상황이 나타난 그림입니다.
-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발표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듣습니다. 말차레를 지키고 들은 내용을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끄덕이는 등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

-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습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합니다.

- 발표를 듣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기회를 얻어 질문해야 합니다.
- 발표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듣습니다.
- 곱슬곱슬한 털이 많아 강아지 이름도 곱슬이라고 했습니다.
- 강아지의 눈은 동그라면서 크다고 하였습니다.
- 민수가 학교에 갔다 오면 강아지가 경중경중 높이 뛰어오르며 반겨 준다고 하였습니다.
- 소개하는 글에는 소개하는 대상의 이름과 특징을 쓰고,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넣습니다.

소단원 1

기본 말차레 알아보기

9쪽

- | | |
|--------------------------|-----|
| 1 꿈 | 2 ① |
| 3 ㉔ 친구가 말할 때에는 끼어들면 안 돼. | 4 ④ |

-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자신의 꿈을 말해 봅시다.”라고 하였고, 동현이가 자신의 꿈이 과학자라고 하였습니다.
- 동현이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 당황했을 것입니다.
- 여자 친구는 동현이가 말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잘못을 했습니다.
-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는 끼어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대화할 때 주의할 점

- 말차레를 지켜 말합니다.
- 친구가 말할 때에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 대화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 상대에게 말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말해도 되는지 물어본 뒤 말합니다.

소단원 1

통한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

10~13쪽

- | | | |
|-----------------------|---------------------------------------|----------|
| 1 세 명(3명) | 2 ⑤ | 3 속옷, 신발 |
| 4 ① | 5 (2) ○ | 6 ① |
| 7 ② | 8 (1) ㉔ 곰 인형 (2) ㉔ 고모에게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 9 모험 |
| 10 ⑤ | 11 (1) ① (2) ③ (3) ② | |
| 12 시냇물을 따라 흘러가 버렸다. 등 | | |
| 13 ① | 14 (1) ① (2) ② (3) ③ | |
| 15 ② | 16 ㉔ | |

- 라라의 오빠는 월터, 맥스, 핀으로, 총 세 명입니다.
- 라라는 오빠들이 입다가 작아진 옷을 물려받아 입습니다.
- 라라는 오빠들에게 옷을 물려받아 입지만 속옷과 신발만은 물려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신발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늘 새것이어서 라라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 반짝반짝 빛나는 신발은 라라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좀 큰 신발을 사 주셨습니다.



- 6 엄마는 좀 더 오래 신으라고 라라에게 발보다 좀 큰 신발을 사 주셨습니다.
- 7 라라가 소풍을 갈 때 새 신발을 신자 엄마는 “더러워질 텐데…….” 하고 걱정했습니다.
- 8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떠올려 보고 왜 소중하게 여기는지 씁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과 그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을 뜻하는 낱말은 ‘모험’입니다.
- 10 라라의 신발 한 짝이 시냇물에 빠져 라라는 허둥지둥 신발을 따라갔습니다.
- 11 물에 빠진 신발을 따라가다 월터는 돌에 채어 넘어졌고, 맥스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핀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 12 라라는 물에 빠진 신발 한 짝을 건지지 못하고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 13 ‘신발 한 짝’, ‘장갑 한 짝’과 같이 둘이 어울려 한 쌍을 이루는 것의 각각을 세는 단위는 ‘짝’입니다.
- 14 오빠들은 신발 한 짝으로 무엇을 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 15 한 짝만 남은 신발이라도 라라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으므로, 라라는 애너벨이 흥을 보아도 상관없다는 듯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습니다.
- 16 말차레를 지켜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말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말합니다.

소단원 2 **기본** 소개할 내용 정리하기 14~15쪽

- 1 자신 2 ①, ③ 3 ②
- 4 (1) ㉠ (2) 예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5 하윤이(정하윤)
- 6 ②, ③ 7 (1) ③ (2) ④ (3) ② (4) ①
- 8 ④

- 1 ㉠과 ㉠은 서준이와 하윤이가 각각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 2 ㉠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이름과 글을 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 3 ㉠에서 하윤이는 ‘저는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 4 ㉠에는 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 특징 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에는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채점 기준 (1)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난 글에는 ㉠을 쓰고, (2)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저는 정하윤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였습니다.
- 6 하윤이는 지금은 노란색 긴팔옷을 입고 있고,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색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습니다.
- 7 하윤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로 하윤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종이접기이고, 잘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하윤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 자신의 이름: 정하윤
- 자신의 모습: 머리를 묶고 다님. 지금은 노란색 긴팔옷을 입고 있음.
- 자신이 좋아하는 것: 종이접기
- 자신이 잘하는 것: 그림 그리기

- 8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소단원 2 **통합** 자신을 소개하는 글 쓰기 16쪽

- 1 ㉠ 2 치타 3 ①
- 4 ③, ⑤
- 5 (1) 예 제 이름은 박준형입니다. (2) 예 저는 안경을 쓰고 말랐습니다. (3) 예 저는 블록 조립을 좋아합니다. (4) 예 블록으로 모양 만들기를 잘합니다. 저번에는 블록으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5) 예 저는 커서 로봇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6 ①

- 1 친구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쓸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 2 준영이는 치타를 무척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 3 '이준영'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으니 이름을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 4 친구의 발표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며, 발표를 들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은 뒤에 말할 기회를 얻어 말합니다.
- 5 읽을 사람이 친구들이므로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항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1)~(5)까지 모두 각 항목에 알맞은 내용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소개하는 글에서 문장이 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소개하는 글을 고쳐 쓸 때 살펴볼 점

-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썼나요?
- 자신의 모습이나 좋아하는 것을 소개했나요?
-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썼나요?
-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썼나요?

국어 활동

17~19쪽

- | | | |
|--------|---------|--------------------------|
| 1 ③ | 2 ⑤ | 3 (2) ○ |
| 4 ① | 5 (1) ② | (2) ① |
| 6 ①, ⑤ | 7 ⑤ | 8 자신이 아니라 동생에 관한 내용이어서 등 |
| 10 ① | 11 ① | 12 반딧불이 |

- 1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 2 호준이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 3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 4 친구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을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 5 ㉠은 자신이 말을 하는 방법, ㉡는 상대방에게 말차례를 넘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말차례의 뜻

말차례란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지키는 순서를 말합니다.

- 6 말차례를 가져올 때에는 손짓을 하거나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상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말할 차례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7 자신의 이름, 나이,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따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 8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동생이 아닌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합니다.
- 9 별빛 캠프는 장갑산에서 별을 관찰하는 행사입니다.
- 10 비닐장갑은 바람에 날려 가거나 산에 불이 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 11 선생님은 비닐장갑에게 어른들을 불러와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12 반딧불이가 비닐장갑 안에서 빛을 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20쪽

- | | | |
|-----------|------------|----------|
| 1 ④ | 2 (1) ①, ④ | (2) ②, ③ |
| 3 ③ | 4 불, 뿔 | |
| 5 ③ | 6 자르다 | |
| 7 (1) [좀] | (2) [거꾸로] | |

- 1 옆 친구가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2 상대의 말을 듣는 방법, 자신의 말차례에 말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3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므로 자신의 특징이 다양하게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한 가지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 자신의 이름과 모습, 특징이 들어가야 합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까닭을 함께 말하면 좋습니다.
- 읽을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골라서 소개해야 합니다.
- 자신이 잘하는 것과 더 노력할 점을 써도 좋습니다.

2. 말의 재미가 솔솔

핵심 확인 문제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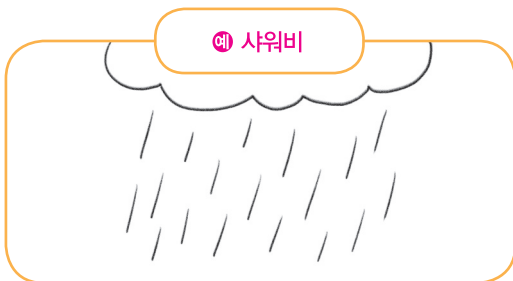
- 1 주고받는 2 ○ 3 놀이터, 오이
4 × 5 책 제목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27쪽

- 1 (1) ① (2) ② 2 (1) ㉠ (2) ㉡ (3) ㉢ (4) ㉣
3 해설 참조 4 (1) 예 비밀 (2) 예 비빔밥

- 가랑비는 국숫발같이 가늘어서, 이슬비는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붙은 이름입니다.
- (1) 차갑게 느껴져서 '찬비'입니다. (2)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려서 '단비'입니다. (3) 굵고 거센 모양이 장대 같아서 '장대비'입니다. (4) 낮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비라서 '잠비'입니다.
- 비가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관찰해서 그려 보고, 특징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 첫소리가 '비'인 다양한 낱말을 떠올려서 씁니다.

소단원 1

기본 재미있는 말놀이 하기

28~29쪽

- 1 ② 2 ①, ③ 3 예 자랑스러워.
4 예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5 현빈
6 (1) ③ (2) ② (3) ①
7 바나나도 있고 8 ②

- 문덕이와 친구들은 다섯 글자로만 대화하고 있습니다.

- 말놀이를 할 때 말을 억지로 늘이거나 끊어서 말이 안 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 친구를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등을 생각하여 다섯 글자로 표현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쓰기 예

정말 고마워. / 넌 빨리 달려. / 장난쳐 미안. / 멋진 친구야. / 걱정하지 마. / 너를 응원해. / 내 짝이 최고!

- 이외에 친구들과 함께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고, 여러 가지 낱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과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고, 여러 가지 낱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지나가 '빨가면 고추장.'이라고 했으므로, 현빈이는 '고추장'을 이어 말해 '고추장은 매워.'라고 해야 합니다.
-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떠올린 후 각각의 질문에 알맞은 답을 선으로 이어 봅니다.
- 말 덧붙이기 놀이는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이는 말놀이입니다.
- 자기가 할 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놀이를 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말놀이 할 때의 주의할 점

- 규칙을 잘 알고 지킵니다.
-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 말을 억지로 늘이거나 끊어 말이 안 되게 하지 않습니다.

소단원 1

통합 주변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 이야기 만들기

30쪽

- 1 ② 2 (1) 예 도서관 (2) 예 약국
(3) 예 시장 3 예 학교, 예 빵집, 예 바다
4 예 채소 가게, 예 오이, 예 고추, 예 당근, 예 배추, 예 무
5 (1) 예 빵집, 당근 (2) 예 빵집에서 사 온 당근 케이크의 맛을 잊을 수 없다.



- 1 '동네 앞', '개울가', '대문 앞'처럼 장소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 2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여러 개 생각해 본 다음, 노랫말에 어울리게 넣어서 바꾸어 써 봅니다.
- 3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로는 슈퍼마켓, 학교, 놀이터, 빵집 등이 있고, 가고 싶은 장소로는 놀이공원, 편의점, 분식점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4 자신이 쓴 장소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떠올리며 빈칸에 써 봅니다.
- 5 어떤 낱말을 고를지 정하고, 고른 낱말을 연결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문제 3번과 4번에서 쓴 낱말 가운데 두 개를 골라 맞춤법에 맞게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통합**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31~32쪽

- 1 예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시원하다고 느꼈다. / 여름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 때 시원했다. 2 ③ 3 (1) ② (2) ①
4 가 5 (1) ② (2) ① 6 ④
7 ④ 8 현준

- 1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언제 시원하다고 느꼈는지 자유롭게 생각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시원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맞춤법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이나 배경 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시원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3 '더위를 식힐 정도로 시원할 때'는 그림 ②와 어울리고, '속이 후련할 만큼 음식이 뜨겁고 얼큰할 때'는 그림 ①과 어울립니다.
- 4 나 는 '시원하다'라고 했지만 '뜨겁다'라는 말과 어울립니다.
- 5 다 는 폭포 근처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을, 라 는 여자아이가 양치질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6 다 는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와 관련이 있고, 라 는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져 기분이 좋아질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 7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시원하다'입니다.
- 8 라 에서는 양치질을 해서 입안이 깨끗하고 말끔해진 것을 시원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소단원 2 **기본**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을 찾아 소개하기 33쪽

- 1 (1) 예 호랑이 형님 (2) 예 온달 장군
2 예 산에 살고 있지만, 틀림없이 제 형님이십니다. 3 ③ 4 해나

- 1 도서관에서 제목이 재미있는 책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을 찾아보고, 책 제목을 써 봅니다.
- 2 자신이 읽은 책에서 재미있는 말, 감동을 주는 문장이나 대사를 찾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문제 1번에서 답한 책 가운데 좋아하는 문장을 알맞게 골라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기 위한 책갈피이므로 어려운 낱말이 아닌 좋아하는 문장을 써서 꾸며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 찾는 방법
• 인물이 주고 받는 말에서 재미있는 말을 찾습니다.
• 감동을 주는 문장을 찾습니다.
•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문장을 찾습니다.

- 4 내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책갈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가 찾은 재미있는 문장을 소개하며 말의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 활동 34~35쪽

- 1 (1) ② (2) ① 2 ④ 3 예 농담
4 ④ 5 ④ 6 예 우주여행
가는 것을 상상해. 7 ③
8 ③

- ㉠에는 ‘바나나’, ㉡에는 ‘개나리’가 들어가야 꼬리따기 말놀이가 맞게 이어집니다.
- ‘칠판’은 ‘교실’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낱말입니다.
- 이외에도 ‘ㄴㄷ’으로 시작하는 낱말에는 ‘누다, 남다, 낭독, 놓다’ 등이 있습니다.
- 첫소리가 ‘ㄱㅇ’인 낱말은 ‘가위, 구이, 길이’ 등이 있고, 첫소리가 ‘ㅎㄱ’인 낱말은 ‘학교, 한글, 한강’ 등이 있습니다.
- 첫소리가 ‘ㅅㅅㅎ’으로 된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 ‘상상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다.’라는 뜻입니다.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 ‘소중해’는 첫소리가 ‘ㅅㅅㅎ’입니다.
- ‘ㄱㅅㅎ’과 ‘ㅅㅅㅇ’을 첫소리로 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을 떠올려 보고, 그 낱말이 느낌을 표현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 ‘ㄱㅅㅎ’을 첫소리로 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
예) 궁금해, 건강해, 고고해
- ‘ㅅㅅㅇ’을 첫소리로 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
예) 정겨워, 즐거워, 지겨워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36쪽

- 1 해설 참조 2 다섯 글자 말놀이
3 ㉠ 4 ㉡ 5 아름다운 한
글을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을 지녀요.

- 제시된 말놀이 가운데 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규칙을 잘 알고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색칠해 봅니다.
- 다섯 글자로만 말하는 말놀이는 ‘다섯 글자 말놀이’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러 가지 말놀이

- 말 덧붙이기 놀이: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이는 놀이입니다.
- 꼬리따기 말놀이: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입니다.
- 주고받는 말놀이: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말놀이입니다.

- 말놀이는 친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 아니므로 말놀이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책 목록을 만들 때에는 책 제목과 좋아하는 문장을 정리하여 좋아하는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출발’에서 시작해 ‘아’에서 글자 아래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름’으로 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살표를 계속 따라가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단원 평가

37~39쪽

- 1 ㉠ 2 (1) ㉠ (2) ㉡ 3 예 비둘기
4 (2) × 5 ㉠ 빨가면, ㉡ 고추장
6 ㉡ 7 ㉡ 8 ㉡
9 예 진아가 칠판에 당근을 그렸다.
10 ㉡, ㉠, ㉢ 11 예 한글 12 ㉡
13 (1) ㉠ (2) ㉡ 14 예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마신 뒤 좋아하는 표정이 재미있었다.
15 ㉠ 16 ㉠, ㉡ 17 ㉠
18 예 이 퍼즐은 이제 시시해. 19 (2) ○
20 ㉡

- 이슬비는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붙은 이름입니다.
- 가랑비는 국숫발같이 가늘다고 했으므로 국숫발 그림과 어울리고, 이슬비는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린다고 했으므로 풀잎에 이슬이 맺힌 그림과 어울립니다.
- ‘비’가 첫소리인 낱말을 자유롭게 떠올려 봅니다.
- 말놀이를 하면 여러 가지 낱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꼬리따기 말놀이는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입니다. ‘사과는 빨개’의 꼬리를 따서 ㉠에는 ‘빨가면’이 들어가야 하고, 앞말이 ‘고추장’으로 끝나므로 ㉡에는 ‘고추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 동그란 모양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웃겉이’는 세모 모양입니다.

- 7 말놀이 규칙이나 방법을 따르면서 말해야 합니다.
- 8 ‘어디까지 왔니’라고 묻는 말에 답하는 내용이므로 빈 칸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 9 ‘당근’과 ‘칠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당근’과 ‘칠판’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내용의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 방법을 생각하며 내용이 이어지도록 순서대로 번호를 써 봅니다.
- 11 첫소리가 ‘ㅎ’으로 시작하는 낱말에는 ‘한글, 학교, 향기, 합격, 한강, 학급, 화가, 하교’ 등이 있습니다.
- 12 얼음물을 들고 있는 모습과 배경의 얼음 조각 등을 통해 ‘시원하다’가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3 ①은 큰 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이고, ②는 양치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 14 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시원한 책」의 글과 그림에서 재미있게 느낀 부분을 떠올려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정리하여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5 시원하다고 느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한 친구는 조은입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아빠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 16 사진은 한쪽 면에는 좋아하는 문장, 다른 쪽 면에는 책 제목을 쓴 책갈피입니다.
- 17 ‘소중해’는 첫소리가 ‘ㅅㅅㅎ’입니다.
- 18 ‘시시해’는 신기한 데가 없고 하찮게 느껴질 때 쓰는 낱말입니다.

채점 기준 ‘시시하다’라는 낱말의 뜻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 맞춤법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9 (1) 친구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말놀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말놀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낱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 20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을 골라 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 책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겪은 일을 나타내요

핵심 확인 문제

42쪽

- 1 꾸며 주는 말 2 × 3 글감
4 (2) ○ (3) ○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43쪽

- 1 ②, ⑤ 2 윤지 3 (2) ○ (3) ○

- 1 ㉠에 꾸며 주는 말이 있고, ㉠이 ㉠보다 문장이 더 길습니다.
- 2 글 ㉡는 ‘넓은’, ‘활짝’과 같은 꾸며 주는 말이 있어 글 ㉡보다 좀 더 생생하고 실감 나게 느껴집니다.
- 3 일기에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쓰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소단원 1

기본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 쓰기

44~45쪽

- 1 튼튼한 / 멋진 2 예 거북선의 모양이, 튼튼해 / 멋져 보이기 때문이다. 3 ③, ④
4 (1) 예 빨간 / 싱싱한 (2) 예 신나게 / 빠르게
5 ④ 6 예 멋진 / 예 우아하게
7 ⑤ 8 (1) 커다란 / 시커먼 등, 커다란 / 시커먼 등 (2) 빠르게, 빠르게

- 1 괄호 안의 꾸며 주는 말은 둘 다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이므로 어느 것이나 골라도 됩니다.
- 2 꾸며 주는 말로 ‘튼튼한’ 또는 ‘멋진’을 고른 까닭이 잘 드러나도록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거북선이 튼튼해 보인다고거나 멋져 보인다고는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예쁜’과 ‘활짝’이 꾸며 주는 말입니다. ‘예쁜’은 ‘꽃’을, ‘활짝’은 ‘피었다’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 4 딸기의 색깔이나 모양, 강아지가 달리는 모습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 5 '멋있는', '힘차게' 같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말이 달리는 모습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

- 글의 내용을 더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글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읽는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 6 '황새'와 '날갯짓'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 7 ㉠에는 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하므로 '우수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8 누리호가 내뿜는 연기는 '커다란 / 시커먼' 등을 넣어 표현할 수 있고,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은 '빠르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1

통합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간 문장 읽기

46~47쪽

- 1 ② 2 ③ 3 (1) ① (2) ②
4 예 새콤달콤 / 예 엄마가 까 주신 꿀이 새콤달콤 맛있다. 5 (3) ○ 6 ④
7 ② 8 동동

- 1 글 ①에서 노랑 꽃을 활짝 피웠다고 했습니다.
- 2 글 ②에서 덩굴손을 따라가니 탐스러운 포도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 3 '활짝'은 '꽃잎 따위가 한껏 핀 모양.'을, '조롱조롱'은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 4 먼저 꾸며 주는 말을 찾고, 자신이 찾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글 ②에서 '돌돌', '빙글빙글', '탐스러운', '보랏빛', '새콤달콤' 등의 꾸며 주는 말을 찾아 쓰고, 그 말을 넣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하여 개구리밥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 6 '바람에 나뭇잎 따위가 많이 떨어지는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낱말은 '우수수'입니다.
- 7 '동글동글'은 뒤에 오는 '잎'을 꾸며 주는 말입니다.

- 8 '동동'은 '작은 물체가 떠서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빈칸에 들어갈 꾸며 주는 말로 알맞습니다.

소단원 2

기본 겪은 일에서 일기 글감 정하기

48~49쪽

- 1 ③ 2 (1) 즐거움 / 반가움 (2) 긴장됨 / 즐거움 (3) 즐거움 / 궁금함
3 ④ 4 ①, ③ 5 (1) 예 두근두근 달리기 시험 (2) 예 달리기 시험을 위해 출발선에서 있을 때 많이 긴장되고 떨렸던 마음을 나타내는 제목이기 때문이다. 6 예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간 일 / 강아지와 공원에서 산책한 일 등 7 본, 들은 / 인상 깊은 일

- 1 소울이의 하루 생활을 정리한 그림 ④를 보면 소울이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소울이가 겪은 일을 살펴보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짐작해 봅니다.
- 3 소울이는 수업 시간에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썼습니다.
- 4 소울이는 선생님께 출발하는 방법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 다음 세 명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 5 제목은 일기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정합니다.

채점 기준 소울이가 겪은 일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알맞게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어제 하루 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려 일기로 쓸 글감을 자유롭게 정해 봅니다.
- 7 하루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고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글감으로 정해 일기로 씁니다.

소단원 2

통합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일기 쓰기

50쪽

- 1 (1) 예 학교 수업이 끝난 후 (2) 예 학교 운동장 (3) 예 친구들과 (4) 예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했는데 골을 넣었다. (5) 예 골을 넣자 친구들이 환호하며 달려와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 기분이 정말 좋았다. 2 지민 3 ⑤



- 1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은 일을 골라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겪은 일 가운데 인상 깊은 일을 하나 골라 글감을 정하고, 일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연관된 인물, 사건, 생각이나 느낌 등을 항목에 맞게 자세하고 솔직하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일기의 제목은 내용을 다 쓰고 나중에 붙여도 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겪은 일에 알맞은 제목 정하기

- 일기의 내용을 대표할 만한 제목으로 정합니다.
- 중요한 일이나 인물을 제목으로 합니다.
- 생각이나 느낌을 넣어 제목을 붙입니다.
- 제목은 일기 내용을 다 쓰고 나중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 3 일기에는 겪은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어 활동

51~53쪽

- 1 고구마 농장 2 ③, ④ 3 새콤한
4 ③
5 예 아름다운 새가 하늘을 훨훨 날아간다.
6 예 꿩이갈매기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7 예 어미 꿩이갈매기는 먹이를 물고 뒹뒹 아
기 꿩이갈매기에게 갑니다. 8 ②
9 (1) 예 아빠와 함께 볶음밥을 만든 일 (2) 예 볶
음밥에 아빠와 함께 만든 추억이 들어가 더 맛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10 ④
11 ① 12 ③ 13 ④

- 1 '나'는 지난주에 친구들과 고구마 농장에 가서 고구마
를 캐었습니다.
2 '캐었습니다'를 꾸며 주는 말로, '나'와 친구들이 고구마
를 캐 행동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3 '김치'를 꾸며 주는 말로, 조금 신 맛이 나서 맛깔스러
운 맛을 표현하는 '새콤한'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4 ㉠에는 '김'을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 ㉡에는
'난다'를 꾸며 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5 '아름다운'과 '훨훨'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보
니다.

- 6 꿩이갈매기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 꿩이갈매기가 살
고 있는 독도의 모습 등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
게 떠올려 봅니다.

- 7 꿩이갈매기의 모습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꾸며 주
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 8 실수로 그림을 잘못 그린 일이 슬펐던 일에 해당합니
다.

- 9 어떤 일을 일기로 남기고 싶은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일기를 쓰면 좋은 점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자
세하게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점검
을 할 수 있습니다.

- 10 ㉠은 '민들레 꽃씨'를 두고 한 말입니다.

- 11 나무에 매달려 있는 녹색의 호두나무 열매는 맛이 아
주 쓰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 12 가을이 되면 밤나무는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새로운
나무를 싹 트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13 '씩'은 '씨, 줄기, 뿌리 따위에서 처음 돋아나는 어린잎
이나 줄기.'를 뜻하는 말로 꾸며 주는 말이 아닙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54쪽

- 1 (1) ② (2) ④ (3) ① (4) ③ 2 ②
3 (1) ㉠ (2) ㉡ 4 (3) ㉢

- 1 빈칸에 알맞은 꾸며 주는 말을 넣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2 날짜와 요일, 날씨를 모두 씁니다.
3 '보드레하다'와 '잘바닥잘바닥하다'는 느낌을 나타내
는 순 우리말입니다.
4 누나가 동생의 얼굴을 닦아 주는 모습과 문장을 보고
'만질만질하다'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느낌을 나타내는 낱말의 뜻 알기

- 찢득찢득하다: 자꾸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다.
- 까슬까슬하다: 거죽이 매끄럽지 않고 까칠하다.
- 만질만질하다: 만지거나 주무르기 좋게 연하고 보드
랍다.

단원 평가

55~57쪽

- 1 꾸며 주는 말 2 ①, ③ 3 ⑤
 4 (1) 예 귀여운 (2) 예 신나게 / 빠르게
 5 (2) ○ 6 예 누리호가 넓은 우주로 힘차
 게 날아간다. / 누리호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멋
 지게 날아오른다. 7 ③ 8 ③, ④
 9 땅속 10 ①, ⑤ 11 조롱조롱
 12 예 아버지께서 사 주신 고소한 군밤을 먹었다.
 13 동글동글 14 ③ 15 ②
 16 예 즐거운 달리기 수업 17 ㉠, ㉡
 18 (2) × 19 ① 20 빙글빙글

- 1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 주는 말은 꾸며 주는 말입니다.
 2 그림 속 우산의 색깔이나 모양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꾸며 주는 말을 고르면 ‘노란’과 ‘예쁜’입니다.
 3 꾸며 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의 뜻을 자세하게 드러내 줍니다.
 4 강아지의 모습이 어떤지, 강아지가 어떻게 달리는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5 문장 (2)가 ‘거센’, ‘끝없이’와 같은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하여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6 누리호가 발사되는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꾸며 주는 말을 생각해 보고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꾸며 주는 말을 두 개 이상 사용하여 누리호가 날아가는 모습을 실감 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물체의 겉면이 고르지 않게 높고 낮은 모양.’을 뜻하는 말은 ‘울퉁불퉁’으로, 뒤에 오는 ‘껍데기’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8 ‘동글동글’, ‘우수수’가 꾸며 주는 말입니다.
 9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하였습니다.
 10 개구리밥은 물 위에 떠서 자라고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입가에 밥풀처럼 붙는다고 하여 개구리밥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 11 ‘작은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을 뜻하는 ‘조롱조롱’이 뒤에 오는 말인 ‘열매’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12 ‘고소한’은 ‘볶은 깨, 참기를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고소한’을 넣어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고소한’의 뒤에 와 꾸밈을 받는 낱말이 뜻에 어울리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3 포도 알을 꾸며 줄 말을 생각해 봅니다. 빈칸에는 ‘여럿이 다 매우 둥근 모양.’을 뜻하는 ‘동글동글’이 들어가야 어울립니다.
 14 오리가 걷는 모습을 ‘오리들은 뒹뒹 걸으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5 ‘울퉁불퉁한’은 물체의 거죽이나 면이 고르지 않게 여기저기 몹시 나옴과 들어간 데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②는 ‘아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6 제목은 일기의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17 ㉠, ㉡, ㉢은 ‘나’가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쓴 부분입니다.
 18 일기의 글감을 정할 때에는 기뻐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등을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골라 일기로 씁니다.
 19 제목은 겪은 일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정합니다. 꼭 재미있는 제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

- 날짜와 요일을 정확하게 씁니다.
- 날씨를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씁니다.
- 겪은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씁니다.
- 꾸며 주는 말을 넣어 실감 나게 씁니다.
- 따옴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

- 20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을 꾸며 주는 말로는 ‘큰 것이 잇따라 미끄럽게 도는 모양.’을 뜻하는 ‘빙글빙글’이 어울립니다. ‘톡톡’은 ‘작은 것이 자꾸 튀거나 터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 분위기를 살려 읽어오

핵심 확인 문제

60쪽

- 1 × 2 겹받침 3 마는
4 몸짓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61~62쪽

- 1 ④ 2 (1) ③ (2) ① (3) ②
3 ⑤ 4 예 포근하고 따뜻하다. / 고요
하고 평화롭다. 5 나 6 ③
7 예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드는 몸짓으로
표현한다. 8 ①

- 1 밤하늘에서는 아기별이, 숲속에서는 산새와 들새가, 엄마 품에서는 우리 아기가 잠잔다고 했습니다.
- 2 아기별은 ‘깜박깜박’, 산새와 들새는 ‘꼬박꼬박’, 우리 아기는 ‘새근새근’ 잠잔다고 했습니다.
- 3 이 시의 3연에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잠이 든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4 아기가 밤에 엄마 품에서 포근하게 자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씁니다.
- 5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시를 읽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입니다.
- 6 친구와 시를 주고받으며 읽는 방법으로 겹받침 발음에 주의하며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발음에 주의하며 시를 읽으면 좋은 점

-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시의 느낌과 분위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 7 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인물의 행동에 어울리는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보드랍고 따뜻한 엄마 품에서 아기가 잠드는 모습이나 엄마가 아기를 품에서 재우는 몸짓을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소단원 1

기본 겹받침이 있는 낱말 읽고 쓰기

63~64쪽

- 1 ① 2 (3) ○ 3 (1) ② (2) ①
4 ④ 5 많다, 없다
6 (1) 값 (2) 끊다 7 ③
8 끈타 9 (1) 었다 (2) 맑다
10 예 닳다 / 붙다
11 예 나는 사이 나쁜 친구가 없다.
12 (1) 여덟 (2) 일따 (3) 가엸따 13 ②

- 1 받침이 없는 낱말은 ‘가위’입니다.
- 2 자음자 한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과 자음자 두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을 나눈 것입니다.
- 3 ‘있다’에서 ‘ㅆ’은 쌍받침, ‘여덟’에서 ‘ㅍ’은 겹받침입니다.
- 4 ‘ㄱ, ㅇ, ㄹ’은 쌍받침이나 겹받침이 아닙니다.
- 5 ‘많다’에 쓰인 ‘ㄷ’과 ‘없다’에 쓰인 ‘ㅃ’이 겹받침입니다.
- 6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바르게 씁니다.
- 7 뭉[묵], 값[갑], 닳다[랍따], 맑다[막따]로 읽습니다.
- 8 ‘끊다’는 [끈타]로 소리 납니다.
- 9 위에 올려놓는 것을 ‘엮다’라고 하고,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햇빛이 밝은 것을 ‘맑다’라고 합니다.
- 10 받침에 ‘ㄱ, ㄴ, ㄷ, ㅃ’ 따위가 들어간 낱말을 생각해서 써 봅니다.
- 11 받침에 ‘ㄱ, ㄴ, ㄷ, ㅃ’ 따위의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ㄱ, ㄴ, ㄷ, ㅃ’ 따위의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2 ‘여덟’은 [여덟]로, ‘있다’는 [일따]로, ‘가엸다’는 [가엸따]로 읽습니다.
- 13 겹받침은 받침 가운데 한 받침만 소리가 납니다. 예 외적으로 ‘읽는[잉는]’처럼 앞 받침과 다르게 발음하는 때도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겹받침 발음 규칙

- 대부분 앞 받침인 ‘ㄱ’, ‘ㄴ’, ‘ㄷ’을 발음합니다.
- 겹받침은 한 받침만 소리가 납니다.
-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따’로 발음합니다.

소단원 1

통합 겹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며 글 읽기

65~67쪽

- 1 (1) ○ 2 ④ 3 ⑤
4 플라스틱 뚜껑 5 ② 6 ④, ⑤
7 플라스틱 쓰레기 8 (2) ○ (3) ○
9 (1) ② (2) ③ (3) ① 10 (1) 마는
(2) 업새기도 (3) 목쓸 11 ②
12 예 페트병과 물휴지를 적게 사용한다. / 일회
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한다.

-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되는 상황을 통해 환경을 보호
하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가 쌓인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진 ㉠에는 바다를 마치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
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소라게가
소라 껍데기 대신 플라스틱을 뒤집어쓴 모습입니다.
- 쓰레기 더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인간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 뒤 해류
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면적의 16배의 플라스
틱 인공 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그물, 부표, 페트병, 물휴지,
과자 봉지 따위가 흘러들어 가서 만들어졌습니다.
-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
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환경 단체들은 쓰레기가 모이지 않도록 막기도 하고
힘을 합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없애기도 합니다.
- 어려운 낱말은 앞뒤의 내용을 통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마는], [업새기도], [목쓸]로 읽습니다.
- 겹받침과 쌍받침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고, 띄어 읽기
에 주의합니다.
- 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씁니다.

채점 기준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고,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기본 시의 분위기 살펴보기

68~69쪽

- 1 골목 2 ④ 3 ②, ⑤
4 (2) ○ 5 신문지 6 예 구석진 응
달에 홀로 피어 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
었다. 7 ③ 8 ④

-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 바람은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서 민들레꽃에게 해
주었습니다.
- ‘힘내렴!’이라는 말에서 민들레꽃을 아껴 주는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 걸어가는 그림이므로 (2)의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신문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습니다.
- 시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채점 기준 구석진 응달에서 달달달 떠는 민들레의 상
황을 쓰고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알맞으면 정답으
로 합니다.

- 바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장면에서는 당당한 분
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
분을 찾으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러 가지 시 읽기 방법 예

-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읽기
- 시의 내용을 나타내는 몸짓과 함께 읽기
- 손, 발, 악기 등으로 박자 맞추어 가며 읽기
-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보여 주며 읽기
-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기

소단원 2

통합 시의 분위기를 생각
하며 소리 내어 읽기

70~71쪽

- 1 오늘 2 ①, ④ 3 (1) ○
4 ① 5 예 밝게 웃는 표정 6 ①
7 ⑤ 8 (1) 예 친구들 앞에서 (2) 예
노래할



- 1 '나는 오늘이 좋아.'라고 하였습니다.
- 2 아침 일찍 새들이 깨워 주었고, 해가 함빡 웃어서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 3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신나게 할 일도 많다고 하였으므로 밝고 힘찬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 4 즐겁고 신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 5 신나고 즐거운 기분에 어울리는 표정을 떠올려 봅시다.
- 6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 7 기분 좋은 하루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기

- 시 속 인물의 마음 떠올리며 읽기
- 시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생각하며 읽기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시를 바꾸어 써 보고 읽기

- 8 시 속 인물의 마음과 시의 분위기를 떠올려 시의 한 부분을 바꾸어 써 봅시다.

국어 활동

72~75쪽

- | | | |
|--------|--------------------------------|---------------|
| 1 뭇 | 2 ㉔ | 3 ㉓ |
| 4 ㉓ | 5 예 도서관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면 정말 행복하다. | 6 당나귀 |
| 7 ㉓ | 8 ㉓ | 9 예 지기 싫은 목소리 |
| 12 무지개 | 13 ㉔ | 14 ㉓ |
| 15 한라산 | 16 ㉓ | 17 옷감 |

- 1 '뭇'은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을 뜻하므로 ㉓에 들어가기에 알맞습니다.
- 2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이어야 하므로 '많다'가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 3 '없다'는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라는 뜻으로 ㉔에서처럼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라고 쓸 수 있습니다.
- 4 '뭇이'는 [목씨]로 읽어야 합니다.
- 5 낱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짧은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6 '나'는 당나귀를 좋아해서 여러 모습의 당나귀를 그렸습니다.

- 7 선생님은 이 세상에 노란 당나귀는 없다면서 당나귀를 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 8 '나'는 나만의 당나귀를 그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 9 당나귀를 그리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그리겠다는 내용이므로 지기 싫은 목소리 등이 어울립니다.
- 10 때때로 입을 땀 산도 세수를 먼저 한다고 하였습니다.
- 11 산에 소나기가 내린 것을 산이 세수를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12 산에 무지개가 걸린 것을 때때로 입을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13 산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뜬 모습을 노래하는 시이므로 감탄하는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 14 설문대 할망은 키가 매우 커서 바다 깊은 물도 겨우 무릎에 닿았다고 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설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이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이지만 선문대 할망, 설만두 할망, 세명뒤 할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15 설문대 할망이 앉아서 설 만한 산을 하나 만든 것이 지금의 한라산입니다.
- 16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지어 주면 육지까지 쪽쪽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17 설문대 할망의 옷이 너무 커서 옷감이 부족하였습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76쪽

- | | | |
|---------------|---------|---------|
| 1 품삯 | 2 ㉔ | 3 (2) ○ |
| 4 ㉓ | 5 귀찬타 | 6 ㉓ |
| 7 ㉓ | 8 (3) ○ | |
| 9 (1) ㉔ (2) ㉓ | | |

- 1 겹받침 'ㄺ'은 일반적으로 'ㄱ'으로 소리 납니다.
- 2 뭇[목], 앓다[안파], 많다[만타], 가없다[가엠포]로 발음합니다.
- 3 '없다'는 [엠포]로 발음합니다.
- 4 앓고[안꼬], 뭇을[목쑈], 귀찮아[귀차나], 많은[마는]으로 발음합니다.

5 '귀찮다'에서 '찮'은 [찬]으로 소리 나고, '다'는 [타]로 소리 납니다.

6 토박이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 방언: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 한자어: 한자로 된 낱말.
- 표준어: 교육적·문화적으로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
-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

7 토박이말인 '볼가심'의 뜻풀이입니다.

8 구름이 산의 꼭대기에 걸려 있는 모습과 제시된 문장을 통해 '마루'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9 '해거름'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때.'를 뜻하는 토박이말이며, '나들목'은 '도로나 철도 따위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교통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차 지점에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뜻하는 토박이말입니다.

단원 평가

77~79쪽

1 (1) ② (2) ① (3) ③ 2 ⑤

3 예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고 싶다. /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고 싶다.

4 ③ 5 (1) 목 (2) 밥따

6 ③ 7 예 우리는 수업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는다. 8 ② 9 쓰레기통

10 ④ 11 (3) × 12 ④

13 ③ 14 업새기도 15 목소리

16 데굴데굴 길거리에 굴러서는 17 ①

18 ⑤ 19 예 밝고 힘찬 목소리

20 (1) 실망한 (2) 감탄한

1 아기별은 밤하늘, 산새와 들새는 숲속, 우리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잠잔다고 하였습니다.

2 자장가를 듣고 잠들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3 주고받으며 읽거나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시를 읽는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다양한 읽기 방법 중 하나를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4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 'ㄱ, ㅈ'은 쌍받침, 'ㄴ, ㄷ, ㅌ, ㅊ, ㅍ, ㄹ' 따위는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5 '뭇'은 [목], '밥따'는 [밥따]로 읽습니다.

6 '값'은 [갑], '끓다'는 [끈타], '엎다'는 [언따], '괜찮다'는 [괜찬타]로 읽어야 합니다.

7 겹받침이 있는 낱말 '앉는다'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겹받침 'ㄴ'이 들어 있는 '앉는다'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넓다'가 문장에 어울립니다.

9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두고 바다가 쓰레기통이냐고 물었습니다.

10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소라게가 소라 껍데기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쓰게 된 것입니다.

11 플라스틱 쓰레기가 왜 바다에 많은지를 생각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울립니다.

12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3 제시된 뜻은 '함부로'의 뜻입니다. '더미'는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를, '부표'는 '물 위에 띄워 위치를 알려 주는 물건.'을, '분류'는 '종류에 따라서 나눔.'을, '뭇'은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14 '엎애기도'는 [업새기도]로 소리 납니다.

15 바람은 추위에 떨고 있는 민들레꽃에게 해 줄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16 무언가를 바닥에 굴리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 ㉠은 민들레꽃을 생각하는 바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므로 따뜻한 분위기가, ㉡은 바람이 골목을 두벽두벽 걸어 나가는 것에서 당당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8 '나'는 오늘이 좋다고 했으니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19 '안녕!', '야호!'는 밝고 힘찬 목소리가 어울립니다.

20 (1) 선생님이 당나귀를 그리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실망스럽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2) 무지개를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5. 마음을 짐작해요

핵심 확인 문제

82쪽

- 1 ○ 2 행동 3 (1) 늘이고, 느
립니다 (2) 반듯이, 반드시 (3) 붙여, 부치십니다
4 (1) ∨, ∷ (2)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83쪽

- 1 ⑤ 2 ①, ④ 3 (3) ○
4 예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아. / 보고 싶었어.
5 ⑤ 6 나

- 오소리와 너구리는 오솔길에서 오랜만에 만나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하며 서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 오소리와 너구리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행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 행복 요정은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로 반가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인물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 반가운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 나와 같이 뜻이 연결되는 낱말들을 이어서 읽으면 문장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는 띄어 읽는 부분이 많아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나처럼 띄어 읽었을 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소단원 1

기본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84~85쪽

- 1 자전거 2 ②, ④ 3 (1) ○
4 ④ 5 ④ 6 ①, ②
7 (1) 예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2) 예 기쁘고
호탕한 마음 8 재민

- 소영이는 아빠와 놀이터로 나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 아빠는 소영이가 탄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게 자전거 뒤를 잡아 주시며 소영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 소영이는 너무 힘들었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 ㉠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소영이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정답 친해지기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정리해 봅니다.
-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보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 짐작한 소영이의 마음을 다양한 말로 표현해 봅니다.

- 소영이는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게 되어 참 뿌듯한 하루였다고 하였습니다.
- ㉠에는 자전거를 혼자 타고 있는 것을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 아빠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1) 아빠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 쓰고 (2) 아빠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하여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재민이는 글에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단원 1

통합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 읽기

86~87쪽

- 1 콩이 2 ④ 3 설레는
4 (1) ① (2) ② 5 ④ 6 ②
7 예 고마운 마음 8 민준

-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의 이름은 ‘콩이’입니다.
-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시게 되어 그동안 주영이네 집에서 콩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을 뜻하는 낱말은 ‘설레는’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낱말의 뜻 알기

- 낯설어하는: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아니한.
예 전학 와서 낯설어하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 설레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리는.
예 설레는 마음을 가다듬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 눈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예 무슨 공공이속이 있는 눈치이다.

- ㉠에는 콩이와 같이 지내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에는 콩이가 적응을 한 것이 기쁘고 안심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 주영이는 콩이와 공놀이를 하고, 다음 날에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 함께 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 ㉠에는 콩이와 더 같이 지내고 싶고, 헤어지기 아쉬운 주영이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 ㉡에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 준 주영이에게 고마워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 세나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단원 2

기본 헛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기

88~89쪽

- | | | |
|---------------|---------------|--------|
| 1 ⑤ | 2 ③ | 3 ①, ④ |
| 4 (2) ○ | 5 마치고, 걸음, 다친 | |
| 6 (1) 말합니다 | (2) 받칩니다 | |
| 7 (1) 때 (2) 때 | 8 (2) ○ | |

- 예린이는 삼촌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마음이 들떠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다고 하였습니다.
- 예린이는 윤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 윤아는 “괜찮니?” 하며 예린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 파란색으로 쓴 낱말은 소리는 같지만 모양과 뜻이 다른 낱말과 헛갈리기 쉽습니다. 낱말의 뜻을 헛갈리면 친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헛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까닭

-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에는 ‘어떤 일이나 과정 따위가 끝나고.’를 뜻하는 ‘마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에는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동작.’을 뜻하는 ‘걸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에는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몸에 상처가 생긴.’을 뜻하는 ‘다친’이 들어가야 합니다.
- (1) 코로 냄새를 느끼는 것은 ‘맡습니다’를 써야 합니다. (2) 물건의 밑에 다른 물체를 대는 것은 ‘받칩니다’를 써야 합니다.
- (1) 새 무리를 뜻하므로 ‘떼’를 씁니다. (2) 냄비에 묻은 얼룩을 뜻하므로 ‘때’를 씁니다.
- ‘붙이다’는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부치다’는 빈대떡이나 달걀 등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익혀 만드는 것입니다.

소단원 2

통합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

90~92쪽

- | | | |
|---------------|---|---------|
| 1 ⑤ | 2 ③, ⑤ | 3 (1) ○ |
| 4 (1) ① (2) ② | 5 삶은 밤 (다섯 개) | |
| 6 ④ | 7 (1) ○ | 8 ⑤ |
| 9 ②, ④ | 10 (1) ③ (2) ① (3) ② | |
| 11 ①, ③ | 12 예 또야가 먹어야 할 밤을 우리가 다 먹어 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 | |

- 여우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또야 것이’ 뒤에서 띄어 읽었습니다.
- 문장이 너무 길면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쉬어 읽습니다.
- 코끼리는 다른 문장이 이어질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쉬어 읽었습니다.
- ‘∨(췌기표)’는 조금 쉬어 읽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겹췌기표)’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쉬어 읽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또야네 엄마는 또야에게 삶은 밤 다섯 개를 주면서 동무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 삶은 밤 다섯 개를 다섯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고 나니 또야가 먹을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 17 실수하고 틀리고 못할 때 ‘괜찮아!’라는 위로의 말과 ‘다음에 잘할 거예요.’라는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 18 ‘안녕’이라는 말에는 한번 바라보게 되고, 생긋 웃게 되고, 자꾸 생각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19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98쪽

1 선우, 진호 2 ④

3 예 학교를 마치고 V 집에 가려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V 갑자기 V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V ‘아, V 어찌지? V 오늘 V 우산 V 안 가져왔는데…….’ V 나는 V 어쩔 줄 몰라서 V 비가 내리는 하늘만 V 바라보고 있었다. V 그때 V 뒤에서 V 승훈이 목소리가 V 들렸다. V “우산 없구나? V 나랑 V 우산 같이 쓰고 가자.” V 휴, V 정말 다행이었다. V 오늘 V 승훈이와 V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4 (1) ② (2) ② (3) ②

5 예 정말? 나도 축구 좋아해.

- 1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인물의 마음을 더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 띄어 읽는 규칙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띄어 읽으면 됩니다.
- 3 문장의 내용과 길이를 생각해 자연스럽게 읽습니다.
- 4 (1) 밥을 다 먹은 상황이므로 ‘마쳤다’와 어울립니다. (2) 가게 문이 닫힌 상황이므로 ‘닫혔다’와 어울립니다. (3) 식물을 화분에 심고 있는 모습이므로 ‘거름’과 어울립니다.
- 5 ‘나는 축구를 좋아해.’라는 말을 기분 좋게 받아 주는 말을 생각해서 써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맞장구치는 말

- 맞장구치는 말은 상대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 주는 말입니다.
- 맞장구치는 방법에는 상대의 말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 자신의 의견을 짧게 드러내는 방법, 공감하며 호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 상대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 주는 말하면서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99~101쪽

- 1 ④ 2 ⑤ 3 ㉠ / 예 ㉡은 띄어 읽는 부분이 많아서 어색하고, ㉠처럼 읽었을 때 문장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4 (2) 〇 5 (1) ② (2) ①
- 6 ③, ④ 7 ④ 8 간식
- 9 (1) ② (2) ① 10 ② 11 즐거운 / 신나는 마음 12 (1) ㉠ (2) ㉡ (3) ㉢
- 13 ④ 14 반드시 15 짧은 밤
- 16 ③, ⑤ 17 ③ 18 예 또야야, 친구들에게 짧은 밤을 나누어 줄 때 기분이 어땠어? / 애들아, 또야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19 (1) 갔다 (2) 식혀서 (3) 불이고 20 (1) 마쳤다 (2) 닫혔다

- 1 오소리와 너구리가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린 것입니다.
- 2 오소리와 너구리가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 요정도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 3 ㉠과 ㉡에서 문장을 어떻게 띄어 읽었는지 비교해 보고,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을 골라 그렇게 생각한 까닭과 함께 씁니다.

채점 기준 더 자연스럽게 읽은 것으로 기호 ㉠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이 ㉠보다 띄어 읽는 부분이 많아 읽기에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나’는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5 ㉠에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에는 자전거 타기에 성공해서 신기하고 기쁜 마음이 드러납니다.
- 6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 7 콩이를 돌보기 전 주영이는 콩이가 자기를 잘 따라 줄지 걱정하였습니다.
- 8 주영이는 가장 먼저 콩이가 좋아한다는 간식을 주었습니다.
- 9 (1) ‘낯설어하는’은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

은.’을 뜻합니다. (2) ‘눈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를 뜻합니다.

- 10 할머니 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콩이와 함께 지내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 11 즐겁다거나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말에서 우진이의 즐겁고 신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 12 (1)에는 어떤 일을 끝내는 것을 뜻하는 ‘마치고’를 씁니다. (2)에는 걷는 동작을 말하는 ‘걸음’을 씁니다. (3)에는 부딪치거나 넘어져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을 뜻하는 ‘다친’을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헛갈리기 쉬운 낱말

- 매다: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풀리지 않게 잡아 동여 묶다.
 예) 신발 끈을 매다.
 메다: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예) 어깨에 배낭을 메다.
 낮다: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
 예) 구두 굽이 낮다.
 낫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몸의 이상이 없어지다.
 예) 감기가 낫다

- 13 김치전을 만들 때는 ‘부쳐’를 써서 표현합니다.
- 14 틀림없이 꼭 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반듯이’는 물건이나 행동이 비틀지 않고 바르게 된 것을 뜻합니다.
- 15 토야는 친구들에게 삶은 밤을 한 개씩 나눠 주었습니다.
- 16 밤을 친구들에게 다 나눠 주고 토야 것이 없자, 토야는 당황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 17 토야는 친구들이 삶은 밤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자기 몫으로 남은 밤이 없는 게 속상해서 울어 버렸습니다.
- 18 토야나 토야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토야나 토야 친구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등이 이야기 흐름에 적절하고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9 (1) 집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므로 ‘갔다’를 씁니다. (2) 음식의 더운 기를 없앤다는 뜻이므로 ‘식혀서’를 씁니다. (3) 가격표를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므로 ‘붙이고’를 씁니다.
- 20 (1) 밥을 다 먹은 상황이므로 ‘마쳤다’와 어울립니다. (2) 가게 문이 닫힌 상황이므로 ‘닫혔다’와 어울립니다.

6.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요

핵심 확인 문제

104쪽

- 1 제목 2 × 3 (1) ○
 4 행동 5 까닭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05쪽

- 1 ① 2 ⑤ 3 (1) ○
 4 예 친구에게 가위를 줄 때 친구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가위 손잡이 쪽으로 건네줄 수 있다.

- 1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펴 준다는 뜻의 ‘배려’라는 낱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2 장면 ③의 인물은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고 있습니다.
- 3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광고입니다.
- 4 작은 일이라도 남을 생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씁니다.

채점 기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 가지 이상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기본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알기

106~107쪽

- 1 줄넘기 2 ④, ⑤ 3 ①
 4 ② 5 (1) ○ 6 ①, ④
 7 ④, ⑤ 8 예 줄넘기를 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 줄넘기의 좋은 점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 2 줄넘기는 양손으로 줄의 끝을 잡고 크게 돌리면서 뛰어넘는 운동이며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줄넘기를 열심히 하면 몸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 3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 4 글의 제목, 글에서 자주 반복되는 낱말,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떠올리며 글의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 글의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 글에서 많이 나오는 낱말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 글쓴이가 글에서 알려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 내용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 5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 가며 뛸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6 줄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손쉬운 운동입니다.
- 7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줄과 작은 공간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 8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안 내용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이 글에서 설명한 줄넘기의 좋은 점 중에서 새롭게 안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며 글 읽기

108~110쪽

- | | | |
|---|----------------------------------|----------|
| 1 나무뿌리 | 2 ② | 3 ③ |
| 4 예 길을 가다가 땅 위로 나온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진 일이 있다. | 5 ② | |
| 6 ⑤ | 7 뿌리 | 8 ④ |
| 9 물, 영양분 | 10 (2) ○ | 11 (1) ① |
| (2) ② | 12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습니다. | |

- 1 텔레비전에서 나무뿌리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 2 ②는 나무뿌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 3 글을 읽기 전에 관련된 경험을 미리 떠올리면 글에 흥미를 느끼고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4 나무뿌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사람마다 경험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무뿌리를 본 자신의 경험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나무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라는 제목을 통해 나무뿌리가 하는 일을 설명한 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6 뿌리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땅속에서 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 7 뿌리가 땅속에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기 때문에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 8 '고정'은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 9 나무뿌리가 흙에서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됩니다.
- 10 (1) '나무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에서 나무의 잎에서 영양분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뿌리는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랍니다.
- 11 글을 읽다가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앞뒤의 내용으로 짐작해 봅니다.
- 12 나무뿌리가 하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여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기본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 파악하기

111쪽

- | | |
|------------------------------|---------------------------|
| 1 예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하기 위해서이다. | 2 (1) ④ (2) ① (3) ② (4) ③ |
| 3 ④, ⑤ | 4 놀이 기구 |

- 1 수연이네 가족은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채점 기준 '여름 방학에 가족 여행을 갈 곳을 정하기 위해서'와 같은 내용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2 아빠는 시골 친척 집, 엄마는 산, 수연이는 바다, 수진이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3 엄마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고, 다람쥐와 꽃도 많이 볼 수 있는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 4 수진이는 지난번에 못 탄 놀이 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소단원 2

통합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112~113쪽

- 1 별나라 2 ⑤ 3 (2) ○
4 ⑤ 5 ①, ⑤ 6 보고 들은 일
7 아기 곰, 아기 곰 8 예 거북 할아버지를 보내면 좋겠다. 거북 할아버지는 지구를 가장 많이 아니까 별나라 친구들에게 지구를 잘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 1 별나라에서 지구의 친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 2 ‘우리 별이 생겨난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구의 친구를 초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3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이 누구인지 알려 주시고 별나라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 4 거북 할아버지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지구에서 살아 지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5 아기 곰은 자신이 지구를 무척 사랑해서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 주겠으니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 6 원숭이는 자신이 별나라의 모습을 동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동물들이 말한 별나라에 가야 하는 까닭

동물	별나라에 가야 하는 까닭
거북 할아버지	지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 곰	지구를 무척 사랑합니다. /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 주겠습니다.
원숭이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 7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려 주겠다고 말한 동물은 아기 곰입니다.
- 8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 외에 다른 동물을 떠올려, 그 동물을 보내면 좋은 까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채점 기준 별나라에 지구를 대표해 보내고 싶은 동물과 그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동물 외에 다른 동물도 까닭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14~115쪽

- 1 ⑤ 2 매우 뽀족하다.
3 (1) ○ (3) ○ 4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요. 5 ⑤ 6 호랑이
7 ① 8 예 호랑이를 다시 껴잡아 들어 가게 해서 가둔 토끼가 참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 1 동물의 다리는 먹이를 얻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발달했습니다.
 - 2 나무를 파서 벌레를 잡기 쉽도록 매우 뽀족합니다.
 - 3 동물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까닭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글입니다.
 - 4 여러 동물의 생김새를 예로 들어가며 동물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5 호랑이는 은혜를 잊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 6 소나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다면 호랑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 정답 친해지기 「토끼의 재판」에 나오는 인물의 생각**

 - 소나무는 호랑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토끼는 나그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7 피를 내어 나그네를 구한 것에서 토끼가 지혜로운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 8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16쪽

- 1 ④ 2 형님 3 ②
4 예 형제의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서 나도 동생에게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5 ④ 6 불우물 7 예 전학 오기 전 매일 함께 놀았던 벗이 생각한다.

- 1 아우는 갑자기 금덩이를 강물 속에 휩 던져 버렸습니다.
- 2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라는 아우의 말에서 형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형님도 부끄러워져서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 4 형제의 우애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까닭과 함께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그 까닭과 함께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동물들이 먹도록 일부러 따지 않고 남겨 두는 감을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 6 ‘보조개’를 뜻하는 토박이말은 ‘불우물’입니다.
- 7 ‘벗’의 뜻을 보고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벗’의 뜻에 맞게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117~119쪽

- | | | |
|---|--|---|
| 1 배려 | 2 (1) ○ | 3 ㉔ |
| 4 예 글에서 줄넘기의 좋은 점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본다. | 5 ㉔, ㉕ | |
| 6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 | | |
| 7 ㉓, ㉔ | 8 ㉕ | 9 예 나무뿌리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이 잎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고 싶다. |
| 10 바다 | 11 ㉔, ㉕ | |
| 12 (1) ○ | 13 ㉑ | 14 별나라 |
| 15 ㉓ | 16 준석 | 17 지구의 대표 |
| 18 ㉕ | 19 예 원송이가 가면 별나라에 가지 않은 동물들도 별나라의 일을 잘 알 수 있니까 원송이를 보내면 좋겠다. | 20 나그네 |

- 1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2 (2) 아이 엄마를 위해 승강기 단추를 대신 눌러 주었습니다. (3)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 3 남을 배려하면 서로를 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4 반복되는 낱말 찾기, 글쓴이가 알려 주고 싶은 내용 찾기 등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글에서 자주 반복되는 낱말이 무엇인지, 줄넘기의 좋은 점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알려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한 가지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 가며 뛸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친구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 6 글에서 세 가지로 설명한 줄넘기의 좋은 점을 정리해 봅니다.
- 7 나무뿌리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얻으며, 나무뿌리에 앞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 8 ‘저장’이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 9 이 글을 읽고 나무뿌리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채점 기준 나무뿌리와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수연이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 11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서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 12 수진이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지난번에 못 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 13 인물의 생각은 주로 인물의 말이나 행동, 표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14 거북 할아버지는 자신이 별나라에 가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 15 거북 할아버지는 지구에서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 16 거북 할아버지가 지구를 잘 알고 있으므로 거북 할아버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준석입니다.
- 17 원송이는 별나라의 모습을 잘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지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18 원송이는 별나라에서 보고 들은 일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 19 원송이가 지구의 대표로 알맞은지 생각하여 그 까닭과 함께 씁니다.

채점 기준 원송이를 지구의 대표로 별나라에 보내고 싶은지 보내고 싶지 않은지 결정하여 그 까닭과 함께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20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가 잘못했고 나그네가 옳다는 토끼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7.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핵심 확인 문제

122쪽

- 1 경험, 경험 2 × 3 ○
4 상황, 마음 5 마음, 고운 말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23쪽

- 1 ㉔ 2 예 속상하다. 3 ㉔
4 창민

- 그림 ㉔에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책상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책상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혼자서 그것도 못 옮기니?”라는 말을 듣는다면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 자꾸 줄넘기 줄이 걸려서 속상해하는 남자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거나 응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㉔을 고운 말로 바꾸어 보기 예

- “잘할 수 있을 거야.”
- “힘내! 나랑 같이 연습하자.”
- “줄이 길어서 자꾸 발에 걸리는 것 같은데, 줄을 조금 짧게 해 보면 어떨까?”

- 고운 말로 말해야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1

기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듣기

124~125쪽

- 1 머리핀 2 ㉔ 3 ㉔
4 ㉔, ㉔ 5 세화 6 예 새로 산 모자를 쓰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찾아 주었다. / 예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

- 지우는 승강기에서 작고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머리핀을 발견하였습니다.

- 지우는 머리핀을 발견한 뒤에 주인을 찾아 주려고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 지우가 안내문을 만든 다음에 일어난 일을 찾습니다. ㉔은 머리핀을 줍기 전, ㉔, ㉔, ㉔은 안내문을 만들기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 지우는 머리핀의 주인이 붙여 놓은 쪽지를 보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 주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 지우는 아끼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무척 속상했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 주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우가 물건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세화의 말은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듣기

-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 들은 이야기의 내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 들은 이야기 속 인물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해 봅니다.

- 지우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써 봅니다.

재접 기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떠올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126쪽

- 1 경험 2 ㉔ 3 ㉔
4 ㉔

- 친구들이 모여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이란 본 일, 한 일, 들은 일과 같은 겪은 일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 자신이 직접 한 일 외에 보거나 들은 일도 경험한 일에 해당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경험한 일 이야기하기

㉔과 ㉔은 자신이 직접 한 일, ㉔은 텔레비전에서 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한 일 외에 보거나 들은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 3 친구들이 모두 겪을 만한 일인지는 발표할 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 4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소단원 2

기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운 말로 대화하기

127~128쪽

- 1 ④ 2 (2) ○ 3 ⑤
4 유주 5 (1) 나 (2) 다 (3) 가
6 (1) ② (2) ① (3) ③ 7 (4)
8 (2) ○ (4) ○

- 1 가에서는 여자아이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서 남자아이의 그림을 망친 상황에서 남자아이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 2 여자아이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그림을 망친 것이 아닌데 남자아이가 너무 화를 내니까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 3 나에서 여자아이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 4 여자아이는 그림을 망쳐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고운 말 예

남자아이	“넘어진 데는 괜찮니?” “일부러 내 그림을 망친 것도 아닌데 화내서 미안해.” “사과했는데 소리 질러서 미안해.”
여자아이	“정성껏 그린 그림을 망쳐서 다시 한번 사과할게.” “먼저 사과해 줘서 고마워.” “내 마음을 이해해 줘서 다행이야.”

- 5 가에서는 여자아이가 무거운 책을 들고 나르고 있고, 그 모습을 남자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여자아이가 넘어진 남자아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수돗가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물을 튀기고 있습니다.
- 6 무거운 책을 들고 있는 친구, 다친 친구, 물을 튀기는 친구에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해 줄 수 있는 말을 찾아봅시다.

- 7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자신의 역할이 돋보이도록 하기도 맡은 역할에 어울리도록 고운 말과 행동을 연습해야 합니다.
- 8 가장 재미있게 대화한 친구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대화를 잘한 친구를 칭찬하고, 자신의 고운 말 사용 습관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소단원 2

통합 고운 말로 생각과
마음 나누기

129~131쪽

- 1 (작은) 연못 2 ③ 3 (1) ○ (2) ○
4 반짝반짝 5 ④ 6 예 험상궂은
메기의 모습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7 예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 메기가 살던 강이
넘쳤기 때문이다. 8 우성
9 (1) 물장군 (2) 물살 (3) 고맙다
10 예 물살을 일으켜 물장군들을 모두 쫓아냈기
때문이다. 11 ⑤ 12 (1) ○

- 1 물고기들은 작은 연못에서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 2 낯선 물고기가 헤엄쳐 오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낯선 물고기가 오래 전 헤어졌던 친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3 잉어가 다행이라고 말한 것은 연못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모두가 무사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 4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뜻합니다.
- 5 메기는 쉼 목소리에 생김새는 험상궂지만 다정한 성격입니다.
- 6 물고기들은 메기의 험상궂은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는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점 기준 메기를 슬금슬금 피했다는 글의 내용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메기가 연못으로 온 까닭은 “이번 비로 내가 살던 강이 넘쳐 이 연못에 들어오게 되었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메기가 살던 강이 이번에 내린 비로 넘쳐서 연못으로 오게 되었다는 메기의 말에 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1) ○ 9 예 미안해, 물을 튀기지 않도록 조심할게. 10 ④ 11 승현
- 12 (3) × 13 예 물장군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은 일이다.
- 14 예 고마워 15 (1) ② (2) ①
- 16 ② 17 예 엄마, 예 “넌 할 수 있어.”
- 18 ①, ③ 19 ⑤ 20 예 선생님. 재미 있는 이야기도 해 주시고 모르는 것들도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여자아이는 책상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2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고운 말로 바꾸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가 무거운 책상을 힘들게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 고운 말을 자연스럽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지우는 ‘머리핀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크게 쓴 안내문을 만들어서 관리 사무소에 가져다드렸습니다.
- 4 자신이 제일 아끼는 물건을 찾게 되어 무척 기쁘고 글쓴이에게 매우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 5 해나는 글쓴이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경험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 6 친구의 생각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7 듣는 사람을 많이 웃게 한다고 발표를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경험을 발표하는 바른 자세

- 자신이 한 일, 생각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 바른 자세로 서서 말합니다.
- 알맞은 표정을 짓습니다.
- 알맞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 듣는 사람의 눈을 보며 말합니다.

- 8 넘어져서 아파하는 친구에게 걱정하는 말을 해 줍니다.
- 9 친구에게 물이 튀게 한 것을 미안해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을 생각하여 상황에 알맞은 고운 말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0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에게 심하게 화를 낸 것을 사과하고 여자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하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 11 민선이는 자신의 짝을 소개하였고, 수정이는 은행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 12 낚신 물고기의 험상궂은 모습을 본 물고기들이 슬금슬금 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13 연못에 갑자기 일어난 큰일은 물장군들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채점 기준 연못에 물장군이 나타나 붕어와 잉어의 몸에 달라붙은 일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메기의 도움을 받은 물고기들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 15 ‘슬금슬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가면서 슬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며, ‘빙그레’는 입을 약간 벌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웃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16 친구의 연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 17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고운 말을 떠올려 써 봅니다.
- 18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

자신의 경험을 발표할 때는 자신이 보고 듣고 한 일, 그리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야 합니다. 친구나 선생님과 같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19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말이어서 고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도록 학교 생활을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고운 말을 전해 봅니다.

채점 기준 담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8.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요

핵심 확인 문제

140쪽

- 1 경험 2 × 3 마음
4 (3) ○ (4) ○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41~142쪽

- 1 ⑤ 2 ④ 3 (3) ○
4 예 친구인 수진이와 우산을 함께 쓰고 싶다.
5 (1) ③ (2) ② (3) ④ (4) ①
6 기쁘다. 등 7 ⑤ 8 예 자라를 따라 용궁으로 가게 되어 신기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두 친구가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채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 두 친구가 정답게 우산 하나를 쓰고 가는 모습에서 따뜻하고 정다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는 두 사람이 더 따뜻하고 정답다고 하였습니다.
- 가족, 친구 등 우산을 함께 쓰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함께 우산을 쓰고 싶은 주변 사람을 떠올려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그림을 잘 보고, 어떤 이야기인지 떠올려 봅니다.
- 박 속에서 보물이 나온 장면입니다. 흥부는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그림 ㉠~㉢에서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그림 ㉠	기쁜 마음	그림 ㉡	고마운 마음
그림 ㉢	깜짝 놀란 마음	그림 ㉣	신기한 마음

- 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 자라의 등에 타고 용궁으로 향하는 토끼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채점 기준 바닷속 용궁으로 가는 토끼의 마음을 알맞게 상상하여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시를 낭송하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143~145쪽

- 1 ④ 2 예 우스운 느낌, 재미있는 느낌 등 3 (3) ○ 4 예 똑같이 웃으며 손을 흔들며 주고 싶다. 5 건넌목
6 (1) ③ (2) ① (3) ②
7 ① 8 ④ 9 ⑤
10 ② 11 (1) ○
12 (1) 예 동생 (2) 예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기 (3) 예 학교 갈 때 같이 가자.

- 그림 속 친구들은 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따라 해 보고 있습니다.
- 어떤 느낌이라고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의 몸짓을 따라 해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 다른 사람과 표정이나 몸짓을 주고받은 경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친구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으므로 기분 좋게 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기준 친구의 행동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몸짓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나’와 ‘너’는 건넌목에서 마주쳤습니다.
- ‘빙긔’는 ‘입을 슬쩍 벌릴 듯하면서도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까닥’은 ‘고개 따위를 아래위로 가볍게 한 번 움직이는 모양.’을, ‘휘휘’는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흉내 내는 말입니다.
- 내가 웃거나 고개를 까딱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 친구를 좋아하고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 그림 ①에서는 시를 친구와 주고받으며 낭송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 낭송하기

- 주고받으며 낭송하기
-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낭송하기
- 랩처럼 낭송하기
-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 놓고 낭송하기
- 손뼉 치고 발 구르며 낭송하기

- 10 팔을 휘휘 흔드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 11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낭송할 수 있고,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송하면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2 친구, 가족 등과 주고받고 싶은 신호를 만들어 봅니다.

채점 기준 신호를 주고받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싶은지, 어떤 뜻을 담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146~148쪽

- 1 ④ 2 ② 3 (1) ② (2) ①
- 4 두꺼비 5 ③ 6 지나
- 7 ⑤ 8 예 조금만 기다리면 편지가 올 텐데 편지 기다리기를 포기한 두꺼비가 안타까웠을 것이다. 9 ① 10 ①, ⑤
- 11 친구 12 (1) 예 개구리가 두꺼비를 위해 편지를 쓰는 장면 (2) 예 개구리는 편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슬프다는 두꺼비의 이야기를 듣고 두꺼비를 위해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3) 예 서둘러 집에 돌아와 편지를 쓰는 개구리의 모습에서 두꺼비를 기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도 개구리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 1 두꺼비는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 때가 가장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 2 개구리는 서둘러 집으로 가서 두꺼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 3 ㉠에서 개구리는 슬퍼 보이는 두꺼비를 걱정하고 있으며, ㉡에서 두꺼비는 한 번도 편지를 받아 보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 4 편지 봉투에 ‘두꺼비에게’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 5 개구리는 달팽이에게 편지를 주면서 두꺼비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6 두꺼비는 개구리가 달팽이에게 편지를 전해 줄 것을 부탁한 줄 모르고 편지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 7 개구리는 달팽이가 편지를 가지고 올 것이라 생각해서 계속 창밖을 보며 달팽이를 기다린 것입니다.

- 8 자신이 보낸 편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개구리는 두꺼비가 편지 받기를 포기한 것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채점 기준 편지 받기를 포기한 두꺼비를 보는 개구리의 마음을 알맞게 짐작해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9 달팽이는 열심히 왔지만 너무 느려서 나흘이나 걸린 것입니다.

- 10 두꺼비는 개구리가 쓴 편지 내용을 듣고 기뻐하며 멋지다고 감탄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글에 나타난 두꺼비의 마음

처음 편지를 기다릴 때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어 속상한 마음
개구리가 보낸 편지를 기다릴 때	편지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어 행복한 마음

- 11 개구리는 두꺼비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게 기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 12 이 글을 읽으며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리고 그 까닭을 적으며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고른 뒤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 장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통합 인형극을 감상하고 인물의 마음 짐작하기

149쪽

- 1 ④, ⑤ 2 ③
- 3 (1) 오누이 (2) 동아줄 (3) 나그네
- 4 (1) ○ (3) ○

- 1 엄마는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 2 호랑이는 오누이를 속여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 3 각각 ‘오누이’, ‘동아줄’, ‘나그네’를 뜻하는 말입니다.

- 4 인형극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단원 2

통합 인형극을 감상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150~151쪽

- 1 ①, ⑤ 2 고개를 끄덕이며 3 ⑤
4 (1) ○ (3) ○ 5 (1) ② (2) ① 6 소담
7 ② 8 (1) ○ (2) ○

- 장면 ①에서는 형에게 벼 베는 방법을 배운 아우가 형과 함께 신나게 벼를 베고 있습니다.
- 장면 ①에서 형은 자신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 하는 아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벼단을 옮겨다 놓았는데 벼단이 그대로 있어서 고개를 가우뚱한 것입니다.
- ㉠은 형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들에게만 들리는 말이므로, 형과 대화하듯이 크게 말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 (1)은 장면 ②에 해당하는 감상이고, (2)는 장면 ①에 해당하는 감상입니다.
- 장면 ①, ②에서 형제는 서로를 위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찬이 한 말은 알맞지 않습니다.
- 형과 아우가 함께 농사를 짓는 장면은 벼를 베는 내용인 ‘장면 ①’ 앞에 와야 합니다.
-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고 따라 해 보며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또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써 보거나 인물에게 편지를 써 볼 수도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형극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 인형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와 이야기해 봅니다.
- 인형극 속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봅니다.

국어 활동

152~153쪽

- 1 시, 생각이나 느낌 2 (3)
3 예 냄비에 흰밥이 가득한 장면 4 ④
5 ① 6 놀람 7 가
8 ⑤

- 시를 낭송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시 속 인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 인상 깊은 장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을 씁니다.
- 할아버지는 올챙이를 딱히 여겨 구해 준 것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 형은 자신의 집에 벼단을 가져다 놓으러 온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 글 ㉠은 호랑이가 엉덩방아 쪼는 장면이 우스웠고, 위험한 순간에 피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썼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 ㉠이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쓴 글인 까닭

글 ㉠은 인형극의 내용을 정확히 썼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잘 찾아 썼습니다. 그리고 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인형극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54쪽

- 1 ④, ⑤ 2 ㉠ 3 ①, ②
4 (1) × 5 정빈 6 구르미
7 ②

-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생각해 말합니다.
- 단순히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이 왜 재미있었는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보다 쉬운 말로 발표합니다.
-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인물의 이름만 봐서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와 빠르기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5 웃기는 말로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인물의 말을 전달합니다.
- 6 ‘구름이’는 [구르미]로 읽어야 합니다.
- 7 ‘구름에’는 [구르메]로, ‘구름을’은 [구르물]로 읽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바르게 발음하기**

구름이[구르미] / 구름에[구르메] / 구름을[구르물]

단원 평가

155~157쪽

- | | | |
|-----------------------------|---|---------|
| 1 ②, ③ | 2 우산 | 3 예 |
| 소리 / 따뜻한 목소리 | | 다정한 목 |
| 4 ② | | |
| 5 ③ | 6 ③ | 7 ① |
| 8 두꺼비에게 편지를 쓰려고 | 9 ④ | |
| 10 두꺼비 | 11 ⑤ | 12 행복하다 |
| 13 예 | 할머니께 생일 축하 카드를 받은 적이 있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 14 인물 |
| 15 그림자 인형극 | | |
| 16 (1) 행동 (2) 말 (3) 크기, 빠르기 | | |
| 17 ⑤ | 18 ④ | |
| 19 예 | 형님이 동생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동생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형님에게 벼 베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는 아우님의 모습이 멋있었어요. | 20 ③ |

- 1 우산 속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 2 ㉠은 두 사람이 쓰고 가는 작은 우산 한 개를 표현한 것입니다.
- 3 다정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낭송합니다.
- 4 제시된 장면은 독이 깨져 울고 있는 콩쥐 앞에 두꺼비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콩쥐는 자신을 도와 준 두꺼비가 고마울 것입니다.
- 5 건널목에서 친구와 마주쳐 반가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6 ‘나’가 ‘휘휘’ 신호를 보냈으니 똑같이 ‘휘휘’ 팔을 흔들 것입니다.
- 7 친구와 시를 주고받으며 낭송하고 있습니다.
- 8 개구리는 두꺼비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 9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어 속상해하는 두꺼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 10 두꺼비를 생각하는 개구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 11 개구리는 두꺼비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게 기쁘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 12 개구리와 두꺼비는 행복해하면서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 13 편지를 받거나 기다리면서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채점 기준 편지를 기다리거나 받은 경험을 떠올려 쓰고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시 속 인물의 행동을 보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거나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 15 그림자로 만든 인형극을 그림자 인형극이라고 합니다.
- 16 인형극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7 위험에 처한 풀이와 순이가 하늘에 살려 달라고 하는 장면이니 다급하고 간절할 것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각 장면에서 인물의 마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엄마의 마음	깜짝 놀라고 무서운 마음
오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말할 때 호랑이의 마음	오누이를 속이려는 마음
하늘을 향해 살려 달라고 말할 때 오누이의 마음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

- 18 형이 동생에게 자상하게 벼를 베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부드러운 말투로 읽는 것이 어울립니다.
- 19 형이나 아우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 봅니다.
- 20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생을 만나 놀란 형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